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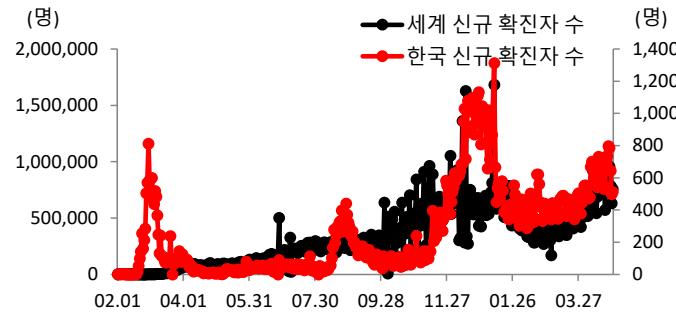
코로나19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

SK증권 리서치센터

2021년 4월 28일 수요일

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일간 증가 추이

세계 신규 확진자 759,285명, 한국 신규 확진자 512명



출처: WHO

코로나19 확진자/사망자/완치자

한국 코로나19 신규확진자 500명대 유지

2021-04-28 8:55 갱신

	세계	한국	중국	미국	인도	브라질	기타
확진자수	148,849,578	119,898	90,610	32,876,948	17,748,607	14,370,456	#####
(전일대비)	759,285	512	11	50,782	369,122	29,669	12,612
사망자수	3,140,259	1,820	4,636	586,952	198,597	392,204	2,543,002
(전일대비)	12,612	3	-	775	3,113	1,279	8,217
완치자수	127,030,617	109,695	85,654	25,510,637	14,624,474	12,879,051	99,331,743
(전일대비)	1,013,623	845	3	130,777	296,222	69,882	646,671
의심환자							

후베이*는 중국 통계에 포함됨.

출처: WHO, Wuhanvirus.kr / WHO 발표 기준. 언론 보도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

매크로 및 금융시장 Insight

해외

● '코로나19 백신 부자' 미국의 고민 '낮은 수용성'

- 코로나19 백신을 한차례 맞은 성인이 54%에 달하는 미국도 낮은 수용성이 고민
- 국제 통계 사이트 'Our World in Data'에 따르면 20일 기준 코로나19 백신을 당장 맞겠다는 응답률이 영국은 67.5%로 가장 높은 반면 미국은 36.1%에 불과

● 중국 매체, 미국의 인도 코로나 지원에 '불순한 의도' 비난

-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거센 인도에 백신 재료와 방역 물품 등을 지원 키로 한 것에 대해 중국 관영 언론들이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비난
- 관영 환구시보, "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한 곳에서 과학과 인도주의가 아닌 지정학적 논리가 작용한다는 게 매우 안타깝다"고 주장

● 백신 쥐고 버티던 미국 'AZ백신 6천만회분 타국에 지원할 것'

- 미국이 연방당국 차원의 안전성 검토를 마치는 대로 6천만 회분 분량의 아스트라제네카(AZ)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백신을 타국에 내놓기로 결정
- 언제 어느 나라에 얼마만큼씩 지원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으나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인도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임

국내

● 코로나19에도 세계 국방비는 늘어…'1위' 美 39%·한국 10위

- 코로나19 대유행에도 지난해 전 세계 군비지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. 미국은 세계 국방비의 39%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. 한국은 10위
- 2위를 달린 중국은 2520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. 전 세계 비중의 13%다. 중국의 군비 지출은 26년 연속 증가

● 하루 확진 35만명 인도, 한국대사관 직원 10여명 집단감염

- 인도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35만 명에 이르는 등 대규모 집단감염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한~인도 간 항공편 운항 허가 중단 소식에 인도 교민사회가 대혼란에 빠짐
- 확진 판정을 받은 교민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. 대사관에 따르면 코로나19 교민 확진자 수는 100여 명(누적) 규모

● '1~3월 경제성장률 1.6%…코로나19 이전 회복'

-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.6% 증가했다 발표. 앞서 한국은행은 1분기 성장률이 1.3% 정도면 GDP 규모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'19년 4분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
- 이에 따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경제 규모를 회복한 것으로 추정.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1.1% 증가했고, 정부소비도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으로 1.7% 성장

산업/기업 Insight

해외

● '코로나 뉴 트렌드'…런던 금융가 빈 사무실 주택으로 개조

- 영국 런던의 금융 중심가인 시티오브런던의 빈 사무실들이 가정집으로 개조될 예정이라고 이 지역 정부 관리 기관인 시티오브런던코퍼레이션(CLC)이 27일 발표

● 코로나 백신 접종 느린 일본…다음 달 모더나 승인 전망

- 일본 정부는 다음 달 도쿄도와 오사카부에 설치할 대규모 백신 접종 센터에서 미국 기업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사용하기로 결정
- 후생노동성이 다음 달 20일쯤 모더나 백신의 승인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방향으로 조율 중

● 카타르 항공, 세계 최대 국제선 운항 항공사 등극

- 카타르 국영 카타르 항공이 오랜 경쟁사인 에미레이트 항공을 제치고 세계 최대 국제선 운항 항공사의 자리에 올랐다고 월스트리트저널(WSJ)이 25일(현지시간) 보도
- 카타르 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으로 전 세계 항공사들이 운영노선과 직원을 줄인 것과는 달리 공격적인 노선 확장과 직원 채용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늘렸음

국내

● '코로나 이전 회복' 장밋빛 전망…금융지주 '배당 기대감' 커진다

- KB·신한·하나·우리금융 사상 최대 이익…리스크·자본 관리도 양호
- 국내 경제 올해 1분기 1.6% 성장 "코로나 이전 회복"
- 작년 줄어든 배당 등 주주환원책 올해 대규모 실행 기대

●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1300명 투약…개발 속도 불나

- 헥키로나 글로벌 임상 3상 환자 모집과 투약을 완료
- 헥키로나를 투약한 환자 중 안전성 측면에서 심각한 증상이 발현한 환자는 아직까지 없으며, 투약 후 이상 반응으로 인한 연구 중단 사례도 없다는 것이 사측의 설명

● 건설업, 코로나에 500여명 일자리 증발…삼호개발·GS건설 1년새 직원 300명↓

- 지난 해 국내 주요 건설사 50개 업체의 고용 일자리가 1년 새 500여 개 사라진 것으로 파악
- 서희건설과 한라 등은 최근 1년 새 100명 넘게 직원이 늘었지만 삼호개발과 GS건설 등은 300명 넘게 감소해 대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음